

행정안전부(2010)는 지방자치단체 녹색경쟁력 지표를 개발하였다. 4개 분야 15개 지표로 녹색교통, 녹색건축물, 녹색생활 실천, 녹색기반으로 제시하고 세부 지표별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국토해양부 녹색성장기획단(2009)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를 성장으로 전환하여 생태와 에너지, 교통, 산업 등 7개 분야의 발전과 환경, 경제, 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한국적 녹색성장 도시모델을 제시하였다. 평가부문은 에너지, 녹색교통, 물순환, 자원재활용, 녹색산업, 생태축, 녹색시민운동으로 제시하고 정량적, 정성적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환경부(2004)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친화적인 지방행정 활성화를 목표로 그린시티 지정제도와 환경성 종합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린시티 지표로 환경기반분야, 환경정책분야, 현장평가분야로 총 3개 평가부문으로 구분하고 34개의 세부지표를 제시하였다.

한편 2009년 유럽을 시작으로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미국, 독일 등 현재 환경 성과와 미래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Green City index를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도출하였다. 유럽에서는 8개 분야 30개 세부지표로 구성하고 이산화탄소, 에너지, 건축물, 교통, 물, 쓰레기 및 토지이용, 대기질, 환경 거버넌스로 구분하고 세부 평가항목을 제시하였다. 정성적 지표는 14개로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정책 증진 확장 정도, 에너지 효율 빌딩 이니셔티브, 그린교통 프로모션, 혼합 저감 정책, 녹색 토지이용 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전지구적 도시 지표 기관(GCIF)는 도시의 성과 및 지식 공유를 하는데 있어 세계적으로 비교하고자 Global City Indicator Facility를 구성하고 도시서비스 지표와 삶의 질 지표를 제시하였다. 도시서비스